Revista Iberoamericana, 13, 2002년 12월

사파티스타(EZLN) 투쟁의 역사적 의미

박 병 규
고려대학교

Park, Byong-Kyu. (2002). Un sentido histórico del EZLN. *Revista Iberoamericana*, 13, 117-129.

Desde el primero de enero de 1995, el 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EZLN) ha desplegado una lucha muy complicada para lograr sus propósitos políticos, económicos y culturales. Y algunos políticos o académicos han analizado brillantemente las acciones zapatistas desde el punto de vista de anti-neoliberalismo o guerra de redes (netwar). Por ende, este artículo enfatiza la vertiente del nacionalismo mestizo para aclarar y entender las acciones zapatistas en el contexto sociocultural mexicano.

El nacionalismo mestizo de México como estado nación se formó definitivamente desde la Revolución Mexicana. Las élites dominantes del siglo veinte lo apoyaban a través de recursos políticos y económicos; los intelectuales, por su parte, acuñaban la llamada 'búsqueda de la identidad' para integrar a todos los miembros al estado nación. En una palabra, el nacionalismo mestizo es una especie de gran narrativa o gran máscara, según el subcomandante Marcos, que tiene una fuerza ideológica para que los miembros de la sociedad civil se olviden de todas las diferencias de condiciones sociales y culturales. Resultado de ese proceso monolítico, los indígenas mexicanos como seres de carne y hueso se convirtieron en un ser abstrato e ideal. A mi modo de ver, eso es lo que cuestionan los zapatistas.

En realidad, los zapatistas buscan una alternativa política y proponen una sociedad multidimensional que sustituirá a la sociedad civil basada en el nacionalismo mestizo. Sin embargo, el programa zapatista tiene un dilema : ¿cómo podría lograr sus propósitos sin abolir el marco de estado nación? Será posible sólo cuando se forme un consenso en torno a un modelo de nueva sociedad. Desde este punto de vista podríamos decir que el programa zapatista se entiende como un programa que prescinde del nacionalimo mestizo del siglo veinte y, por ende, tiene un sentido histórico al pretender

abrir un nuevo horizonte para una sociedad monolítica.

I. 사파티스타(EZLN) 봉기

1994년 1월 1일 검은색 스키마스크로 복면을 한 사람들이 멕시코의 지방 소도시에 나타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선언문(일명, 라칸돈 정글 1차 선언)을 낭독하고, 이 도시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를 포함하여 인근 6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말이 선언문이지, 사실은 전쟁 포고문이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지금까지 원주민은 수탈과 억압과 멸시의 대상이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서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EZLN: 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이하 '사파티스타'라고 약칭함)을 조직하고 멕시코 정부군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장게릴라 단체가 하나 더 늘어난 것쯤으로 치부했다. 봉기가 발생한 치아파스(Chiapas)주의 빈곤과 원주민 차별 대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 때문에 원주민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선언하다니,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더구나 자신을 부사령관이라고 밝힌 마르코스는 오똑한 코에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원주민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주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불순 세력의 개입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예상대로 며칠 뒤(1월 5일) 멕시코의 유명한 시인이자 보수 논객인 옥타비오 파스(Ocatvio Paz)는 "이번 봉기에 극단 세력이 참여"했다고 운을 뗀 다음, "그들의 언사와 행동으로 판단할 때 이 세력의 이념적 기원은 모택동사상, 해방신학, 센데로 루미노소, 중미 혁명운동, 다시 말해서 이미 파산한 20세기 이념의 잔해물이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간과 더불어 이러한 예단은 빗나가기 시작했다. 정부군은 사파티스타를 진압하기 위해 장갑차와 무장 헬기까지 동원했으나, 이에 대항하는 사파티스타들의 무장은 폭동 수준을 넘지 못했다. 수년 동안 준비했다는 군대(EZLN)인데도 전투원에게 개인 화기조차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지 일부는 몽둥이나 다름없는 목총을 들고 싸웠다. 이때부터 사파티스타들의

항쟁은 외부의 지원을 받은 이념 투쟁이 아니라 자생적인 생존 투쟁이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1월 12일 수도 멕시코 시티 대광장에서 시민 수천 명이 "치아파스 학살을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돌입함으로써 사태의 국면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 사파티스타를 단순한 무장 반군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드물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기수,[1] 심지어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포스트모던 반란'이라는 평가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시작은 조악한 수준의 반군이었으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안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원주민의 투쟁에 대해 이러한 라벨을 붙이는 것은 또 다른 서구식 포장이 아닐까? 궁벽한 멕시코 시골의 일이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와 무관하다거나 그들의 주장이 보편성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서구인들이 치아파스 원주민들의 운동을 조망하면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마르코스를 비롯한 사파티스타 지도부의 탁월한 투쟁 전략에 매료된 나머지 원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쯤 점검해보는 것도 굴곡된 라틴아메리카 담론이 아무런 비판 없이 유통되고 확산되는 우리 풍토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많이 논의된 신자유주의나 인터넷 전쟁(netwar)은 훌륭한 참고문헌으로 돌리고(클리버, 신정환), 그 대신에 원주민 담론이라는 관점에서 사파티스타를 살펴보려고 한다.

II. 사파티스타의 민주주의

사파티스타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살리나스 고르타리 정권이 과감하게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에 따른 '1917년 헌법'의 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헌법은 1910년부터 "토지와 자유"라는 기치 아래 10년 동안 전개된 멕시코 혁명의 결과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에서 마련되었으며, 이후 몇몇 조

1) 사파티스타는 1996년 7월 치아파스에서 '대륙간 회합'(Intercontinental Encuentros)이라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신자유주의에 반대 운동의 기치를 들었다. 이 회의에는 전세계 5개 대륙, 42개 나라에서 모두 3,000명이 넘는 활동가,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전 지구적 차원의 반 신자유주의 투쟁을 논의하였다.

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멕시코라는 국가의 기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 헌법 27조는 에히도(ejido)라는 멕시코만의 독특한 농지법을 보장하고 있는데, 살리나스 고르타리는 농업개혁의 차원에서 이 농지법을 개정함으로써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에히도란 국가가 공동체에게 분배하는 토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특수은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이용권은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만이 갖는다. 또한 이용권은 제3자에게 매매·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저당을 설정할 수도 없다. 이처럼 에히도를 엄격하게 규정한 농지법은 멕시코 혁명의 원인이 된 토지의 소수 집중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기획으로 알바로 오브레곤 정권(1920-1924)이 제정했으며, 1934년에는 헌법 27조에 명시하였다.

이후 농지법은 몇 차례 수정을 거치게 되지만, 역대 집권자들은 농민들의 불만 완화와 정권 안정의 차원에서 시시때때로 에히도를 분배하여 왔다. 이러한 '당근' 덕분에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은 70년 가까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인데, 멕시코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5년 현재 에히도를 비롯하여 공동체에 소속된 토지는 멕시코 전국토의 48.2%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생산력과 경쟁력을 중시여기던 살리나스 고르타리 정권은 1992년 1월 농지법을 수정하여 에히도의 이용권을 제3자(외국인 제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어느 사회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존재한다. 원주민을 포함한 농민들이 보기에 이러한 조치는 유력자들의 에히도 침탈을 합법화하는 조치였다. 그렇지 않아도 농장주나 지방 유력자들은 갖가지 책략과 편법을 동원하여 에히도를 잠식해왔는데, 중앙 정부는 이러한 농촌 현실과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른바 '농업 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든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1992년 3월에는 대규모 농민 시위를 유발하였으며, 1994년 1월 1일, 즉 살리나스 고르타리가 최대 공적이라고 자부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는 바로 그 날, 사파티스타라는 무장 단체의 출현과 저항을 촉발하였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과 일련의 농업 정책만으로는 사파티스타의 투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법 개정은 치아파스 원주민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역의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과 사파티스타는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살리나스 고르타리의 신

자유주의 정책은 원주민의 분노를 야기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또한 어느 면에서는 사파티스타 지도부의 투쟁 전략이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1994년 1월 1일에 발표한 '라칸돈 정글 선언'부터 지금까지 나온 성명서, 편지 등의 문건에서 사파티스타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요구 사항은 원주민 문화의 독자성과 자치권의 보장이다. 다시 말해서, 열악한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의 개선, 폭압적인 지방 권력의 제거, 토지 문제를 비롯한 경제 · 사회 정의의 실현을 법률적이고 제도적으로 확보하려고 투쟁하는 것이다.

사파티스타는 이러한 문화적 · 정치적 자율성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기원은 원주민 사회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의 소규모 공동체 사회가 그렇듯이, 원주민 사회의 의사 결정 방식은 공동체 성원 하나 하나의 의사를 청취하여 합의점을 도출한다. 이 사회에도 이른바 '어른'이 있으나 이들의 영향력과 권위는 절대적이고 통제적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다. 사파티스타들도 이러한 방식에 의거하여, 봉기에 참여한 원주민 부족들(초칠, 촐, 체탈, 마메, 토홀라발, 소케 부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이른바 '민주적인 집단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주민 자치는 멕시코 혁명 당시 에밀리오 사파타(Emilio Zapata)가 실시한 적이 있다. 사파티스타라는 말도 실제로 이 혁명아 사파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인데, 사파타는 괄괄한 성격의 전형적인 무장 판초 비야와 달리 침착하고 조용하고 냉정하며, 지극히 순수한 이상주의를 추구한 인물이었다. 멕시코 시티 근처에서 모렐로스 주(州)에서 봉기한 사파타는 소규모 게릴라 전술로 점령지를 확대하여 갔으며, 주요 목표는 정권의 획득이 아니라 실질적인 토지 혁명의 완성이었다. 1910년 멕시코 혁명 전야, 대토지소유자들은 자영농민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농장의 일꾼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농민들은 억울한 사정을 정부에 탄원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몽둥이와 철창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분개한 사파타는 지배계급이 "찬탈한 토지와 목재와 물은 원소유자인 마을 공동체나 시민들에게 즉각 반환한다"는 내용의 '아얄라 계획'을 발표하고 점령한 지역에서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켜나갔다.(백종국, 140) 이 과정에서 사파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개혁을 수행하였을 뿐 지배자로서 어떠한 강제나 요구도 하달하지 않았다. 다만 주민들의 의결사항이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실천에 옮기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파타는 멕시코 민중들에게는 신화적 존재로 남아 있다.

아무튼, 사파티스타의 정치 프로그램은 이러한 전통을 창조적으로 수용한다. 마르코스의 말을 빌리면,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민중 전체가 자신의 기획을 중심으로 통합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또 그럴만한 역량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볼모로 잡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현 정부가 무력으로 자신의 기획을 나라 전체에 강요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무력으로 시민 사회에 강요하고 싶지 않으며 또 그럴만한 역량도 없습니다."(마르코스, 125-6)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파티스타의 최종 목적은 국가 권력의 장악이 아니라 개체성을 중시하는 사회, 차이를 존중하는 정치의 확립이다. 이런 까닭에 멕시코의 카스타네다(Castañeda)는 사파티스타가 추구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비판적인 어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멕시코를 가장 철저하게 부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부정하는 멕시코의 현재는 어떤 것인가? 이를 위해서 원주민의 사회적 위상과 지배계급과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겠다.

III. 원주민의 사회적 위상

멕시코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과 질병, 천대와 굴종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워낙 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서 최근에는 '인디오'라고 하지 않고 '원주민'(indígena) 또는 '농민'(campesino)이라고 부른다. 단어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향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원주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권 안정 차원에서도 이들을 적절하게 달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원주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현재 멕시코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법률적으로 원주민을 규정해놓은 나라는 없다. 생물학적으로 따져도 간단하지가 않다. 조상 몇 대를 두고 혼혈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혈액의 비율로 규정하기도 곤란하다. 여기에 유전 인자라는 장난꾸러기를 고려하면 분류의 타당성은 한결 의심스러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은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므로 관계적 정의에 호소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이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지배 집단과 상이한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소수 집단을 가리킨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지 5백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원주민을 여전히 지배 집단과 분리하여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들이 아직도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며,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라는 증명이다.

이러한 배제와 억압의 메카니즘은 식민 시대(1492-1810)에 시작되었다. 식민 사회는 철저한 피라미드형 성층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정이 직접 파견한 식민지배자를 정점으로 크리오요(criollo, 식민지 태생 백인), 메스티소 순으로 자리잡았고, 기층에는 원주민들과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있었다. 식민지배자들은 이러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원주민들은 동물 같은 존재라는 관념을 만들어내고 유포시켰으며, 이후 베이컨, 몽테뉴, 로크, 흄, 헤겔 같은 유럽의 사상가들에 의해 원주민이란 게으르고, 무지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이라는 통념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독립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810년을 기점으로 라틴아메리카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수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운 사람들은 원주민을 포함한 민중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전쟁의 대의나 독립의 의미도 인식할 수가 없었다. 그저 백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총을 들고 싸움터로 나갔을 뿐이다. 독립을 쟁취한 자유파 크리오요들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를 했으나, 원주민들의 실질적 신분 상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독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다. 한마디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란 크리오요가 식민시대 최상층을 점유한 식민지배자(본국 파견의 백인)를 축출한 정변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식민사회의 성층 구조는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경우, 국가는 소수 지배 계급의 사유물이나 마찬가지였으며, 토지는 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어 대농장(latifundium)을 형성했고, 원주민을 비롯한 민중들은 중세의 장원이나 다름이 없는 대농장의 날품팔이 일꾼(peón)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토지 집중과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1876-1880, 1884-1911)의 독재는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고, 드디어 1910년에는 멕시코 혁명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혁명은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민중들이 "토지와 자유"라는

명백한 투쟁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대규모 사회변혁 운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는 메스티소 국가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며, 외세 배격과 국민 통합의 근간이 되는 민족주의(nationalism, 사실은 '국민주의'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후 정치인들은 석유 국유화와 노동조합(CTM)을 중심으로 민중 부분을 동원하여 메스티소 민족주의를 실천했고, 예술가들은 공공기관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서 이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했으며, 지식인들은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담론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현대의 멕시코가 탄생하였다.

IV. 메스티소 민족주의

메스티소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대의 멕시코, 나아가서는 라틴아메리카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 사파티스타들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좀더 얘기하기로 한다. 메스티소란 원래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식민지배자들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을 일컫는다. 그런데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피가 복잡하게 섞이게 되었으므로 지금은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다. 아무튼 메스티소는 태생적으로 상처를 입은 존재들이다. 정복자들의 성폭력에 의해서 태어난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으며,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더라도 식민시대의 법률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사생아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런 까닭에 메스티소들은 언제나 뿌리 찾기에 열중이었다.

사실 식민시대에는 고대 원주민의 역사를 무시해버렸다.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들의 역사, 헤겔의 말을 빌리면, "단 한 번 불어닥친 유럽의 바람에 사멸한" 역사였다. 그리고 독립을 달성한 19세기의 라틴아메리카 지배 엘레트는 원주민의 역사는 물론 수치스런 식민시대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라틴아메리카는 어디까지나 갓 태어난 신생국이었을 뿐이다. 이에 반해서 20세기의 메스티소들은 고대 원주민의 역사와 식민시대의 역사를 복원하고 재평가했다. 양자 모두 자신들의 근원으로 여겨 동등하게 취급했으며, 공식 역사에 포함시켰다. 멕시코 시티의 '3문화 광장'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 이들의 역사관을 한눈에 알 수 있다.

> 1521년 8월 13일, 카우테목(Cuauhtemoc, 아스테카의 마지막 왕)은 사력을 다해 틀랄텔롤코(Tlatelolco, 아스테카의 수도)를 방어했으나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의 수중에 떨어졌다. 그것은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었다. 오늘의 멕시코를 형성하는 메스티소의 고통스런 탄생이었다.

과연 1521년 전투는 정복자도 비정복자도,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는 싸움이었을까? 역사는 아스테카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원주민에 대한 정복과 식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팡파레였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스티소들은 엄연한 사실(史實)을 부정하거나 얼버무림으로써 추상적인 이념으로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려 든다. 즉, 메스티소의 이중적이고 절충주의적인 역사관은 이제는 소수로 전락한 원주민과 백인들을 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이념적인 전략이며, 사회 내부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 정치적 · 문화적 차이를 뒤덮기 위한 정치적 담론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원주민의 위상은 가르시아 칸클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의 말처럼 "화석화된 존재"들일 뿐이다. 메스티소 민족주의는 찬란한 고대 원주민 문명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자의반 타의반 아직까지도 궁벽한 시골에서 그 역사를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조명했다. 원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란 어느 면에서 배타적 사회가 만들어낸 고립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원주민들이란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할 뿐, 물질문명이나 사회통합에는 관심이 없는 종족이라는 편견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삶을 과거의 유산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이색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 대상으로 보았다. 한 마디로, 과거의 원주민 문명이건 현재의 원주민 삶이건 모두 메스티소 민족주의라는 박물관에 진열된 전시물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언젠가 마르코스는 편지에서 "부사령관 마르코스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벗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과연 멕시코 시민 사회는 가면을 벗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마르코스, 129)라고 반문한 적이 있는데, 이 가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스티소 민족주의이다.

이와 더불어 메스티소 민족주의는 원주민과 원주민 문명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나 실재하지 않고, 말은 하지만 목소리는 없는 존재로 은폐하려던 원주민 담론이 표출되고 유포되고 수용될 수 있는 촉매제로도 작용했다. 현상적으로 보면, 원주민의 목소리가 조직화되기 시작한 때는 1975년이다. 이 해, 멕시코에서 원

주민의 권익 옹호를 위한 전국 규모의 비정부기구(NGO)가 결성되고 토지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과 원주민 문화의 고유성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농민 단체가 있었으나 원주민은 참여하지 않았다. 아무튼 이러한 경향은 1992년 '신대륙 발견 5백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과 투쟁을 통해서 더욱 심화되었다. 스페인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하려고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으나 멕시코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단체들은 '발견'이 아니라 '침입'일 뿐이며, 자신들로서는 제삿날인데 무슨 축제냐고 항의를 제기하였다.(Dussel, 216)

5백주년 행사에 대한 원주민의 항의와 시위, 그리고 뒤이은 사파티스타들의 투쟁은 메스티소 민족주의에 내포된 딜렘마의 역사적 전개이다. 원주민의 과거 역사를 인정하되 현재의 삶을 배제하거나 은닉하려는 멕시코 사회의 이중성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분출된 현상이다.

아무튼 이러한 메스티스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파티스타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주민의 문화의 독립성과 자치권 보장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정부와 1994년부터 2년이 넘는 협상 끝에, 1996년 2월 16일 원주민 공동체의 정치 · 경제 · 문화적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한 '산 안드레스(San Andrés)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이 협정을 법률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20일 '화해와 평화 위원회'(Cocopa: Comisión de Concordia y Pacificación)는[2] 헌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였다. 흔히 '코코파 법안'(Ley de la Cocopa) 또는 '원주민 권리 법안'이라고 일컫는 이 헌법 개정안 시안에 따르면, "원주민은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멕시코 국가의 일부로서 자율권을 갖는다…."라는 항목을 헌법 4조에 삽입하고 있다. 그러나 에르네스토 세디요 당시 멕시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멕시코 정치지도자들은 코코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 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세디요 대통령의 말처럼, 원주민에게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멕시코의 주권과 단결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메스티소를 중심으로 통합된 멕시코라는 국가가 분열될 수

2) 코코파 위원회는 1994년 치아파스 봉기 직후, 멕시코 4개 정당(PRI, PAN, PRD, PT)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도 있다는 우려의 표명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파티스타 지도부는 멕시코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지도 않으며, 정권 획득이 목표가 아니라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으며, 마침내 2001년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개정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을 벌여 멕시코 시티에 입성하고, 3월 28일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2001년 4월 30일 상하 양원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치아파스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폭스 정권의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개정 헌법은 원주민의 문화적 독립성과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이 모두는 멕시코라는 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번에 개정된 헌법 2조에 신설된 "멕시코는 단일하며 분리불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즉, 원주민의 자치권은 연방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메스티소 중심의 국민국가라는 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인 것이다. 당연하지만, 사파티스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평화적인 해결은 아직도 답보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V. 고르기아스의 매듭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파티스타의 투쟁은 현대 멕시코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고 부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멕시코 정치인들, 지식인, 나아가서는 사파티스타가 직면하고 있는 고르기아스의 매듭을 엿볼 수 있다. 멕시코 혁명 이후 국민 통합에 매달려온 멕시코의 지배 엘리트들로서는 사파티스타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할 수도 없다. 멕시코 전역에는 산재하는 또 다른 원주민들 또한 제2의 사파티스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해체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통 좌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20세기 지식인들 또한 메스티소 지배 이념을 창출하는 이데올로그로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앞서 인용한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처럼 일관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보수주의자가

되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처럼 예전에 주장하던 메스티소 정체성의 추구를 포기하고 사파티스타를 옹호할 경우에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파티스타 역시 현재의 멕시코 정치 체제를 벗어나지 않으려면서도 그 체제를 뒷받침하는 메스티소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불가능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멕시코 지배 엘리트는 19세기부터 시작된 국민국가 건설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강력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부문을 조직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사파티스타는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이상을 벗어나 각 부분의 완전한 자율성에 기초한 다원적인 사회 통합의 모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파티스타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국가 권력의 장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권력을 장악하는 자체가 어느 면에서는 사파티스타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에 배치되는 행동방식이라는 데 딜렘마가 있다. 따라서 실현가능한 방안은, 마르코스의 주장처럼, 담론 투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멕시코 사회 구성원들이 사파티스타의 프로젝트를 메스티소 민족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 통합 모델이라는 컨센서스를 형성할 때만이 치아파스 문제 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파티스타는 20세기 메스티소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다원적 사회 질서의 모색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그들의 투쟁은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이미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백종국, 『멕시코 혁명사』, 한길사, 2000.
마르코스, 『분노의 그림자』(윤길순 옮김), 삼인, 1999.
이성형,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1999.
이성형(편), 『라틴 아메리카 역사와 사상』, 까치, 1999.
클리버, 해리, 『사빠띠스따』(이원영 · 서창현 옮김), 갈무리, 1998.
Dussel, Enrique, 1492. El encuentro del otro, Antropos Ltda, Santafé de Bogotá, 1992.

Fuentes, Carlos, *Los cinco soles de México*, Seix Barral, Barcelona, 2000.
Varios, *Historia general de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México, 1988.
웹사이트, http://www.ezln.org/(산 안드레스 협정 및 코코파 헌법개정안 시안)
웹사이트, http://www.tlahui.com/conmx0.htm(멕시코 개정 헌법)